

“유세차 빼” 험지 광주서 고개 못 드는 국민의힘 유세원들

“국민의힘, 차 빼!”

국민의힘이 진보 진영의 전통적인 지지세가 강한 ‘험지’ 광주에서 힘겨운 대선 레이스에 올랐다.

가뜩이나 불모지인 지역에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면서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1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국힘은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전날부터 광주 곳곳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거리 유세전에 나선 국힘 선거운동원들도 빨간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쓴 채 행인과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선거운동원들 대부분이 유세 손팻말을 높게 든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모습이었다.

얼굴을 애써 가리려는 이유를 묻자, 한 선거운동원은 “아무래도 지역에서 (우리)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되긴...” 하며 고개를 떨군 채 말끝을 흐렸다. 실제 국민의힘 유세를 지켜보던 일부 고령층은 “차 빼”라며 고성을 치기도 했다.

또 다른 선거운동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유세 차량에 대한 위협이 종종 있다고 들었다. 걱정 되긴 한다”고 토로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유세 현장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다가와 “차를 빼라”, “무슨 염치로 여길 오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정당의 호남 약진’으로 평가 받는 지난 대선과는 확실히 달라진 유세장 분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12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에서 제21대 대선 선거대책위를 출범, 국민이례하고 있다. /뉴스스

마스크·손팻말로 얼굴 가린 채 유세… 곳곳서 반발도

12·3 계엄, 尹 탄핵 이후 권리당원 무더기 탈당 러쉬

‘12%대 득표 기록’ 지난 대선과 분위기 확연히 달라

위기도.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제 광주도 달라져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12.72%(12만4511표)를 기록했다.

지역 내 부촌으로 꼽히는 남구 봉선동에서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39.11%로 40%대에 육박했다.

반면 이번 대선에는 12·3계엄 정국과 윤 대통령 탄핵 등의 여파로 국민의힘 광

주시당 당원들마저 이탈하고 있다.

계엄 전 1만여 명이던 국민의힘 광주 지역 권리당원은 현재까지 수백명이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관계자는 “민주당 당세가 센 지역이다보니 선거운동 과정에서 크고작은 마찰이 이어져 어려운 부분은 있다”면서 “광주에 독점 정당에 대한 균형·견제를 위해 국민의힘이 필요하다. 바닥에서부터 시민을 설득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전 노선을 무료로 운행한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일상 속에서 되새기고, 기념식과 전야제 등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적용되며,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광주를 찾은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시내버

광주시, 5월 17~18일 ‘대중교통 무료’ 운행

지난해 첫 무료승차 시민 호응에 올해 이틀간으로 확대

스 승·하차 때 단말기에 태그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운송손실금 정산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카드 태그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무료 운영은 지난 4월 25일 개정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5월 18일 하루였던 무임승차 시행일을 개정조례에서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으로 확대할

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0년 고립되고 외로웠던 광주의 손을 잡아주고, 민주주의의 꽃으로 피워준 전국, 전 세계 평화애호민들이 있었고 이제는 광주가 고마움을 갚아야 할 때이다”며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5·18을 다시 한 번 주목하며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겠다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전면 무료, 땀 나눔세일 등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나눔’의 광주정신을 면면히 느껴달라”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광주시, 5월 16~30일 ‘소년버스’ 달린다

5·18사적지·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지 순회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지를 순

회하는 ‘소년버스’를 16일부터 30일까지 운행한다.

‘소년버스’는 이용자가 광주투어버스 앱

을 통해 정류장을 선택하면 차량이 도착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로,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이동하며 오월광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운행 노선은 ▲전남대학교 정문 ▲효동초등학교 ▲광주역 ▲광주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광주직지사병원 ▲양

림오거리 ▲양림미술관 등이다.

소년버스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하며, 요금은 1회 기준 성인 1700원, 청소년 1350원, 어린이 850원이다. 탑승 후 단말기 태그를 통해 결제하며 시내버스·지하철 환승도 가능하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 1일권(3000원)도

판매하며, 모바일 앱에서 구매 후 24시간 동안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다만, 1회권과 달리 환승은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관광 오매광주 누리집(tour.gwangju.go.kr)과 광주관광공사 대표 누리집(www.gi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투어버스 앱은 애플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광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광주를 찾는 많은 방문객이 오월 광주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12·29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유족과 광주지방법원법률지원단이 13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광주지방법원법률지원단 제공

‘제주항공 참사’ 유족·법률지원단, 참사 책임자 15명 고소

“진상 규명과 엄정 수사, 수사 절차 참여권 확보 목적”

12·29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유족과 법률 지원을 맡은 광주·전남 변호사들이 진상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참사 책임자 15명을 형사 고소했다.

13일 광주지방법원법률지원단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유족 72명과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에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소장 제출 취지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경위에 관한 의혹으로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 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을 제시했다.

피고소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항공공사대표, 서울·부산항공정장을 비롯해 제주항공 대표이사과 정비·안전 담당자, 무안공항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이다.

적용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이다.

제주항공 참사 한 유가족은 “참사 4개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형사 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했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형사 고소를 통해 유족들은 제주항공참사를 수사하는 수사 절차에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수사기관은 유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0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곡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충돌하고 폭발했다.

12시간 여에 걸친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모두 숨진 채 수습됐다. 생존자는 사고 직후 기체 후미에서 구조됐던 승무원 2명에 불과했다.

1993년 7월26일 아시아나기 해남 추락 사고(66명 사망·44명 부상)보다 사상자 수를 크게 웃돌아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송현근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통일화물

통일화물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